



배정훈(장신대)

1. 서론

이 글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국가적 회개운동의 다양한 예들을 통하여 회개 운동의 모델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회개에 관한 언어적인 연구는 많이 있지만¹⁾ 문맥적인 성서연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회개운동에 적합한 모델을 시도한 글은 찾기 어렵다. 소형근은 신명기, 신명기

* 이 논문은 2017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1) 이종성, "회개의 신학적 의미," 「기독교 사상」 28 (1984), 33-43; 김찬국, "성서에 나타난 회개의 의미," 「기독교 사상」 22 (1978), 18-22; J. Goetzmann & F. Laubach, "성서에 나타난 회개," 「기독교 사상」 28 (1984), 20-32. 장성길, "구약성경에 나타난 회개의 의미," 「헤르메니아 투데이」 (2007 여름) 제 39호, 30-40; 정승원, "회개," 「헤르메니아 투데이」 (2007 여름) 제 39호, 10-29; 강성렬, "고대 이스라엘의 애곡 의식과 회개," 「한국신학정보 연구원 성서학 학술 세미나」 2007, 289-306. 김동혁, "에스겔서 회개 본문들의 의미와 기능 : 에스겔 3장 16b-21절; 14장 1-11절; 18장 21-32절; 33장 10-20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58 (2015년 12월), 105-123.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심을 연구하였는데, 이 글과 범위 면에서 겹치기는 하지만 언어적인 시도에 머물고 회개운동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²⁾ 회개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멈추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멈추고, 죄로부터 돌이켜(렘 18:11; 겔 18:21; 슥 1:4)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단계를(대하 15:4; 사 55:7) 포함한다. 회개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3)이 있다.³⁾ 자복하다는 뜻의 야다(יָדָה)⁴⁾, 마음을 바꾸다는 뜻의 니함(נִחַם)⁵⁾, 그리고 죄를 제거한다는 뜻의 수르(סָרַח)⁶⁾가 있다. 여러 단어들 중에서 회개운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단어는 슈브(שׁוּב)이다.⁷⁾ “돌아

-
- 2) 특히 회개에 관한 서론적인 내용은 소형근의 글을 참조하라. 소형근, “너는 돌아와 다시 아웨의 말씀을 청중하고(신 30:8) -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심(회개)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2 (2011년 4월), 105-123.
 - 3) 단어의 용례를 위하여 다음 책을 참조하였다. G. Johannes Botterweck, tr. by John T. Willi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ublication Grand Rapids : Eerdmans, 1977).
 - 4) 야다(יָדָה)라는 단어는 죄를 고백하는 용어로서 자복하다는 뜻을 가진다(레 26:40), 속죄죄(레 5:5)와 속건제를 드릴 때(민 5:5) 제의 순서중의 하나로 죄를 자복한다. 대속죄일(레 16:21)과 회복 직전에 (레 26:40) 죄를 자복한다. 에스라의 기도(스 10:1), 느헤미야의 기도(느 9:3),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중에도 (단 9:4, 20) 중보자로서 죄를 자백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Willem A. VanGemeren ed.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97), 405-408.
 - 5) 니함(נִחַם)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이다.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 하나님이 후회하거나(창 6:5; 삼상 15:11, 35), 내리기로 한 재앙과 관련된 경우이며(렘 4:28; 15:6; 20:16; 겔 24:14; 암 7:3, 6). 화라는 목적어를 갖는 경우이다(출 32:12, 14; 렘 18:8, 10; 26:3, 13, 19; 은 3:10; 4:2; 삼하 24:16(대상 21:15); 렘 42:10; 요엘 2:13). 니함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주어로 할 때 주로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창 24:26; 삼하 13:39), 돌이킨다는 뜻으로도 쓰인다(출 13:17; 욥기 42:6; 렘 31:19). Willem A. VanGemeren ed.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1997), 81-83.
 - 6) 수르(סָרַח)라는 단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신 17:20; 삼상 12:20, 21).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단어로 사용된다: 히스기야(왕하 18:6); 요시아(왕하 22:2), 시편(119:102).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사용된다(신 2:27; 5:32; 수 1:7; 왕하 22:2).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슈브(שׁוּב)가 일반적이고, 수르(סָרַח)는 주로 충성심의 결핍을 서술할 때 사용된다. Willem A. VanGemeren ed.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997), 238-239.
 - 7)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 개념에서 중심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는 돌아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강조하는데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Willem A. VanGemeren ed.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4, 57. 할러데이(William Holladay)는 성서에 나오는 슈브 동사의 1054번의 용례 중에 164번이 언약과 관계된 용법들로 분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언약과 관련된 용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또는 하나님이 상대방에 대한 충성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표현을 말한다(왕상 8:33; 렘 4:1). William Holladay, *The Root Subh in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58), 116.

오라”는 뜻의 이 단어 사용은 언약의 단계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⁸⁾ 회개의 단어 연구가 아니라 회개운동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회개를 유발함으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운동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상황인식과 회개운동이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회복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목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공동체가 회개운동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할 수 있다.

회복을 향한 회개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모두 다룰 필요가 있다. 회개운동의 형식적인 측면은 현실의 위기 인식, 재앙 앞에서의 회개 촉구, 공동체의 회개운동⁹⁾, 회개운동의 결과로서 회복 또는 멸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식이 같다 할지라도 회개운동의 내용적인 측면은 달라질 수 있다. 공동체가 돌아가기 원하는 회복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회개운동의 연구를 통하여 국가 회개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회복을 위하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회개에 관한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 중에서 회개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
- 8) 언약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신 7:6; 14:2, 21; 26:19; 28:9).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된 자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기대하신다(신 5:33).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기다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길이 있다(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셋째로,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는 멸망이 선포되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사 9:13; 렘 5:3; 8:6; 15:7; 44:5. 호 5:4; 7:10; 11:5. 암 4:6-10). 넷째로, 하나님은 계명을 어긴 백성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사 1:27; 30:15; 렘 18:11; 호 12:6; 14:1-2). 다섯째로, 이미 멸망해 버린 자들에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신 30:10; 왕상 8:35, 47-48). 이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출 34:6-7; 요엘 2:12-13; 욥 4:2; 사 44:22; 55:7; 겔 14:6; 18:21-32; 속 1:3-4; 말 3:7).
- 9) 인간의 회개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회복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는 양쪽이 다 나타난다. 제사장 문헌에서 회개를 위하여 자복함을 요구한다(레 26:40-41). 신명기(4:29-31; 30:1-10)와 신명기 문헌(왕상 8:44-53)에서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아모스서에서는 회복을 위하여 인간의 회개를 언급하지 않는다(암 9:8-15). 호세아서에서는 회복 이전에 회개를 요구하기도 하고(3:5; 14:1-8)과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2:14-23; 11:1-11). 에스겔서에서는 몇 군데(14:1-11; 18:30-32) 이외에는 회개를 요구하는 본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자복과 회개는 구속 이후에 나타난다(겔 16:54, 63; 20:43; 36:31; 39:26). Jeremiah Unterman, *From Repentance to Redemption: Jeremiah's Thought in Transition* (JSOT 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11-12.

본문을 택하였다. 주로 신명기 사가의 신학이 반영되었다고 여겨지는 본문인 사무엘상 7장과 역대기의 회개 신학을 반영한 역대기하 7장, 그리고 예언서의 회개운동을 보여주는 요엘서, 요나서 3장, 이사야서 1장과 예레미야서 7장을 선택하였다.

2. 구약성서에 나타난 회개운동의 모델 연구

1) 신명기 사가적인¹⁰⁾ 회개운동: 사무엘 7장

사무엘서 7장은 사사 사무엘의 사역의 절정을 보여준다. 사무엘상 7장 2-17절에서 전통적인 자료는 5-12절과 15-17절이다. 2-4절과 13-14 절에서 신명기사가적인 신학이 엿보인다. 신명기사가적인 편집에서 전형적인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주체가 등장한다.¹¹⁾ 이러한 사무엘의 역할은 사사기 6장 7-10절에 나타난 이상적인 사사의 역할과 유사하다.¹²⁾ 사무엘서상 7장에 따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을 이끈 사람으로서, 이 회개운동을 향한 동기는 블레셋의 위협에서 온다.¹³⁾ 이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사무엘은 국가의 위기 시대에 어떻게 회개운동을 전개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운

10) 이 글에서 신명기사가적이란(Deuteronomistic) 용어는 노트(Martin Noth)의 연구에서 시작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에 이르는 문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명기(Deuteronomy) 만을 의미하는 신명기적 인(Deuteronomie) 이라는 용어보다는 더 넓다. Steven L. McKenzie, "Deuteronomistic History", *Anchor Bible Dictionary* II, 160. 신명기 역사서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은우,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 (2008년 9월), 67-86.

11) Tony W. Cartledge, *1 & 2 Samu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eorgia: Smyth & Helwys, 2001), 97.

12) Robert R. Wilson,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 (서울: 예찬사, 1991), 216.

13)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의 등장을 위한 배경을 제시한다. 사사 시대까지 주변의 위협은 사사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적들이었지만, 블레셋은 이들보다 더 강력한 상대였다.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중앙집권적인 군사 능력을 필요로 하여 이스라엘에서는 강력한 왕정이 나타나게 될 정도였다. 엘리 시대 에 이미 강성해진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실패를 맞본 후에 사무엘이 등장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하여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는 회개 없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승리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언약궤의 상실로 이스라엘은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동의 처음 목적은 아니었다. 사무엘이 추진한 회개운동의 목표는 바로 블레셋의 위협이라는 위기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삼상 7:3). 이러한 위기극복을 지향하면서 회개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렇다면 회개운동은 위기를 극복하게 도움을 주었는가?

회개운동이 끝난 직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왔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중재를 요청하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셨다(삼상 7:7-9). 기도는 전쟁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잡게 하였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레에서 나타났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이 사건을 에벤에셀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한 거룩한 전쟁이었다. 이 승리는 일회적인 우연한 승리가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을 뿐 아니라, 잃었던 땅들을 찾는 등 지속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전쟁이었다(삼상 7:13-14).

그렇다면 본문에서 회개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블레셋의 위협을 이기기 위하여 군사력을 키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다(삼상 17:47). 그리하여 구원을 위하여 취해야 할 회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으로 정의한다.¹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문맥을 보여준다. 전심(베콜 레바브)이라

14) 강사문, 『사무엘상』(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8), 225-226.

는 말은 전형적인 신명기 역사가들의 관용구이다(삼상 12:20, 24; 왕상 8:23; 14:8; 왕하 10:31).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에서 전형적인 회개 용어인 슈브(שוב)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신명기사가적인 케리그마이다(렘 3:10; 24:7; 29:13; 암 4:6-13; 호 5:15-6:5).¹⁵⁾ 오래된 전승인 신명기사가적인 편집이외의 구절들인 5-12절과 15-17절에는 중재적인 기도(5, 8-9 절), 죄의 고백(6절),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 간구(8절)의 내용이 담겨 있다.¹⁶⁾

이 위기는 국가적인 것이기에 모든 백성이 이의 없이 회개운동에 참여한다. 사무엘은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한다. 이러한 여호와를 향한 독점적인 예배도 신명기사가적인 것에 속한다(수 24:23, 사 10:16). 블레셋의 압제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보고 있으며,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갱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의식을 행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삼상 7:6). 그들이 모인 장소는 미스바였다(사 20:1, 3; 21:2, 5, 8). 물을 붓는 습관은 애통 속에 참회의 표시이고, 금식은 회개와 결단의 표시이다.¹⁷⁾

15) H. Wolff, *The Vitality of Old Testament Tradition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83-100.

16) Ralph W. Klein, 『사무엘상』(WBC; 서울: 솔로몬, 2004), 136.

17) Ralph W. Klein, 『사무엘상』, 138. 회개를 위하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다시 예를 찾기 어려운 행위이다. 아마도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고백을 통하여 자신을 물처럼 부정하는 의식으로 여겨진다. Robert D. Bergen, *1, 2 Samu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1996), 107. 또는 물을 통하여 정화의식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K. McCarter, *1 Samuel* (Garden City: Doubleday, 1980), 144.

2) 예언서에 나타난 회개운동

(1) 요엘서에서의 회개운동¹⁸⁾

요엘서도 국가의 위기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다. 회개운동의 동기는 임박한 종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메뚜기 재앙만을 목격하였을 뿐이다. 종말론적인 위협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요엘의 해석을 통하여 알려진다. 여기에 예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요엘의 해석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자연재해를 종말에 관한 계시로 받아 들였다. 예언자 요엘의 공동체가 목격한 자연재해는 가뭄과 메뚜기의 재앙이었다. 가뭄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큰 피해를 입혔다(욘 1:10-12). 가뭄은 단순히 곡식에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람, 식물과 짐승도 함께 고통 받는다(욘 1:19-20). 자연재해는 이에 머물지 않고 메뚜기 재앙으로 극치를 이룬다. 메뚜기가 지난 자리의 처참함이 서술된다(욘 2:4-9).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재해가 끝난 후에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재난당한 자를 위로하거나, 그들을 구조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는 자연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을 구조하라는 촉구가 없다. 재해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언자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가 가리키는 종말의 징조를 읽어내는 것이다.¹⁹⁾

재앙이 휩쓸고 간 후에 요엘은 이 자연재해를 종말의 징조로 해석한다. 요엘에 의하면 공동체가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더

18) “요엘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여타 예언서에 대한 언급이 다수 나온다는 면에서 기원전 5세기나 4세기 여간에 기록되었을 것 정도이다.” 마빈 A. 스위니, 『예언서』(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5), 226.

19) “동기는 재앙 체험이었다.”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개론』(왜관: 분도 출판사, 2012), 915; “참혹한 메뚜기 심판과 가뭄을 그의 메시지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7), 393. “현재의 곤경에서 요엘은 ‘시대의 징조’ 즉 최후 심판의 전조를 바라보고 있다.”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394.

큰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에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가리키는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대로 종말이 온다면 요엘이 속한 공동체는 견뎌낼 재간이 없다. 종말은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준비한 자들에게는 구원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요엘의 해석은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공동체 안에 숨겨진 계시를 찾게 도와준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주어졌지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계시를 절실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요엘은 메뚜기로 인하여 겪는 상황의 처절함을 묘사하고, 이것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종말을 가르치는 산 교훈임을 설교한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욘 1:2-3).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자연재해는 요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다. 그들이 경험한 자연재해는 바로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주의 종말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 종말은 메뚜기 재앙이 가져온 것에 비할 바가 아니기에 메뚜기 재앙 앞에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종말은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마지막 자리에 주어진다. 종말은 단순히 치유 가능한 자연재해에 머물지 않고 우주의 종말을 동반한다(욘 2:10-11).

임박한 종말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회개인데 신명기사가 적인 강조점을 담고 있다. 요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흑시 마음

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율 2:12-14)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용어는 신명기사가적이다(신 4:29, 30; 30:2). 금식과 울음과 슬픔은 회개의 과정에서 보이는 행위이다(욘 3:5-9; 예 4:3; 스 10:1-6; 느 8:9, 10).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요구는 형식적인 슬픔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요청한다.²⁰⁾ 요엘 예언자가 회개운동을 촉구하는 이유도 임박한 재앙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들이 재앙으로 멸망할 수 있지만, 회개한다면 주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²¹⁾ 이러한 회개를 통해 재앙을 막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존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이시다(출 34:6-7; 율 2:13; 욘 4:2). 그러나 회개운동에서 하나님이 예정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은 법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하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용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혹시...누가 알겠느냐?”라는 단어에 담겼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회복을 위하여 회개하는 방식은 곧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율 2:13)이다. 요엘에게 메뚜기 자연재해는 바로 종말에 대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통첩이다.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서면 바로 민족의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율 2:18-20;

20) 더글라스 스투어트(Douglas Stuart), 『호세아-요나』(WBC; 서울: 솔로몬, 2011), 470.

21) 회개 촉구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395.

3:1-3). 자연재해로 인하여 좌절한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을 조일 때 예언자 요엘은 후손들에게 이 사건이 종말의 전조임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2) 요나서 3장에서의 회개운동²²⁾

요나서는 비록 이방인의 회개에 관한 것이지만 신명기사가적인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의 어떠한 예보다도 회개를 통하여 재앙을 피하는 이상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재앙의 예고-회개의 요청-회개-하나님이 재앙을 돌리심이라는 전형적인 신명기사가적인 일련의 순서에 따라 회개가 진행되고 있다. 재앙의 예고는 요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요나가 삼일 길을 걸어야 하는 니스웨 성읍을 하루만 돌면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외쳤다(은 3:4).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회개를 요청한 것이다. 요나는 성읍을 떠났지만 성읍은 회개 요청에 응답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였다(은 3:9).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돌이키고 재앙을 멈추어야 할 임무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뜻을 돌이키실 것을 기대하였고, 실제로 백성들의 회개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은 3:10).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재앙을 바꾸게 만든 니스웨 백성들의 회개운동은 어떠하였는가? 이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보였던 어떤 회개보다도 진실했고, 통회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회개의 요청에 따라 니스웨 백성들은 전형적인 회개의 단계를 보여준다(은 3:5-8). 회개의 주체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에까지 이른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재

22) 우택주, “회개의 미학, 불평의 신학, 그리고 합당한 길”, 『기독교 사상』 2004년 (11월호), 98-107.

위에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리고 악한 길과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결심한다. 9절에서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설명할 때 제시된 히브리어 네 단어(미요테아 야습 웨니함/מִיּוֹטֵא יָאֻשׁ וְעִנְיָהִם)는 요엘서 2장 14절과 유사하다.²³⁾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함인데 이러한 하나님 이해도 요엘서와 요나서가 유사하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욘 2:13);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욘 4:2). 즉, 백성들의 회개가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서와 오래 참음을 근거로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신다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이 요나서는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회개운동에서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위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회개요청, 그리고 해를 내리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결정”의 순서로 신명기사가적인 전형적인 회개 운동의 순서를 보여준다(삼상 7:3-14; 스 8:21-23; 렘 36:3).

(3) 이사야서에서의 회개운동 (이사야서 1장)

제의와 윤리의 긴장은 주전 8세기를 전후하여 예언서의 비판에 많이 등장한다(호 6:6; 미 6:8). 이사야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제의를 비판하지만, 자신의 독특한 신학에 근거하여 비판한다. 이사야가 제시하는 윤리적인 비판이 신명기사가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하지만 (신 10:18; 14:29; 16:11, 14; 24:17), 하나님의 임재, 땅, 그리고 성전을 강조하는 제사장 신학을 반영한다. 이사야서 1장의 회개신학에서 두드러진 것은 멸망을 경험하고 남은 자들에게 회개운동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회개는 먼저 자신을 은혜로 남겨진 자라는 정체성의

23)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욘 3:9); “주께서 흑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욘 2:14).

24) 더글라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862.

인식과 남은 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²⁵⁾ 먼저 남은 자란 누구인가? 여호와를 거슬러 패역하여(1:4)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1:5b-7). 그들은 심판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사 1:8-9),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심판을 자초할 패역을 반복하는 자들이다(사 1:5a). 남은 자는 남겨진 것을 은혜로 알고 남은 자로서 재앙 앞에서 회개를 요청받는다. 이사야 예언자는 회개 없는 제의에 대한 비판(1:11-15)과 아울러 공의의 실천(1:16-17)을 주목하고 있다. 이사야의 회개신학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땅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다가 살아남은 심판의 현장에서 병들고 피곤한 사람만이 아니라(사 1:4-6), 땅의 황폐함도 제시된다(사 1:7). 땅의 황폐함을 초래한 원인으로 인간의 죄로 인한 부정을 상징하는 손의 피가 제시된다(사 1:15). 나아가서 이사야가 제시하는 방향은 단순한 계명의 준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을 강조하는 땅의 정화에까지 도달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사야 예언자는 남은 자들에게 어떠한 회개운동을 요청하였는가? 이사야 1장 11-17절에 따르면,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사와 절기를 열심히 지키므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헛된 것이기에 마당만 밟을 뿐이고(1:13),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고, 피가 가득한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1:15).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악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확대 받

25) 배정훈, 『대예언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48-53.

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16-17).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의 실천을 통해 남용된 제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윤리적인 결단에 이르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임하리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파된다. 남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윤리적인 책임을 통하여 의의 성읍이요, 신실한 고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다(사 1:26). 남은 자들의 할 일은 결단하여 악을 버리고 공의를 실천함으로 멸망을 피하는 것이다.

(4) 예레미야에서 회개운동(렘 7:1-8:3)²⁶⁾

예언자들의 제의 비판의 맥락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을 비판하는 성전 설교(렘 7:1-15)를 행한다. 예레미야의 성전설교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충격적인 형식으로 전해진다. 설교를 듣는 자들은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²⁷⁾ 죄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들은 “이것은 여호와와 성전이다”(7:4) 라고 세 번을 반복하면서 성전을 그들의 안전을 보증하는 도구로 여긴다.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도둑들이 악을 행하고 도둑의 소굴

26)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 두 번 등장한다. 26장은 성전설교를 듣는 백성들의 반응을 강조하고, 7장은 백성들의 반응보다는 성전설교를 더 강조한다. 7장은 성전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더 강조하고 있다. Robert P. Carroll, *Jeremiah 1-25* (Fortress: Philadelphia, 2007), 배정훈, 『대예언서』, 147-150. Else Kragelund Holt, “Jeremiah’s Temple Sermon and the Deuteronomists: An Investigation of the Red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Jeremiah 7 and 26,”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6(1986), 73-87. 배정훈, “성전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 『장신논단』, 47 (2015), 42-67.

27)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때문에 자신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생각이다. Peter C. Craigie, *Jeremiah 1-25* (Dallas: Word Books, 1991), 120. 여호와와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과 왕정 사상 때문이다. 이는 한 세기 전에 이사야의 말에서 시작되었다(사 37:33-35).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사야 전승을 비판하고 있다. S. Childs, *Isaiah and the Assyrian Crisis* (Naperville: Allenson; London: SCM, 1967).

에 들어가 잠시 숨었다가 다시 악을 자행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성전이란 회개하지 않고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면죄부를 주는 도둑의 소굴과 같은 곳이었다(렘 7:11).²⁸⁾ 결국 성전이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자만을 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멸망한 모델로 실로의 멸망을 제시한다(렘 7:12). 엘리 시대에 실로에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불의와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아 실로가 멸망했듯이, 하나님의 현존을 강조하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의와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은 불의와 우상숭배의 죄를 금하고, 계명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거할 수 있지만(렘 7:7), 죄를 범하는 대가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다(렘 7:15). 예레미야는 국가 종교에 기초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에 행한 그대로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다(7:13-15). 그러나 이러한 재앙을 앞에 두고 전한 예레미야의 회개 촉구는 결국 실패하였고, 재앙이 돌이켜지지 않았다. 백성에게 전한 예레미야의 설교는 십계명에 기초한 정의와 공의의 촉구이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7:5-6)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

28) 도둑들은 자신들을 쫓아오는 자들이 포기할 때까지 몸을 숨기기 위하여 유대 광야의 굴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범죄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같은 방법으로 성전은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도, 잠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죄책감을 버리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계속하도록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F. B. Huey Jr., *Jeremiah, Lamentatio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Holman, 1994), 105-106.

회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7:8-9).

3) 다니엘서에서의 회개운동(다니엘서 9장)²⁹⁾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는 전형적인 신명기사가 신학에 근거하여³⁰⁾ 포로의 끝을 기대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이다. 다니엘은 중보자로서 회개의 전형적인 상징인 금식하고, 배운을 입고, 재를 뒤집어씌우므로써(단 9:3)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의 모양을 갖춘다. 이어지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참회의 기도이다. 이 기도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다른 기도들과 유사하다.³¹⁾ 다니엘은 전통적으로 드리는 기도문을 따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³²⁾ 다니엘은 “기도하며 자복하는”(단 9:4) 이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끝낸다(단 9:20).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크게 자복(9:4-14)과 간구(9:15-19)로 볼 수 있다.

전반부의 자복하는(תְּכַפֵּר) 기도(9:4-14)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며(단 9:4; 신 7:21; 느 1:5; 4:14; 9:31),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단 7:4; 신 7:9; 느 1:5). 둘

29) 다니엘서 9장은 바벨론은 멸망하였지만 아직 포로 70년의 끝은 오지 않은 다리오 통치 원년을 배경으로 한다(단 9:1-2). 다니엘은 포로 70년의 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장차 기원전 2세기의 공동체가 맞이할 포로 70 이래의 계시를 깨닫고 기도에 돌입한다(단 9:3-19). 기도 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포로 칠십년의 비밀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신다(단 9:24-27). 배정훈, 『다니엘』 (서울: 장로교 출판사, 2016), 188-189.

30) 전형적인 신명기사가 신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1) 하나님의 심판(신 4:27-28; 30:1; 왕상 8:46); 2) 죄의 고백, 회개,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신 4:29; 30:2; 왕상 8:47-48); 그리고 3) 포로의 마지막과 회복(신 30:3-5; 왕상 8:49-53).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하면, 여호와가 이 기도에 응답하여 나라를 회복시키리라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배정훈, 『다니엘』, 192.

31) 이 기도는 에스라 9:6-15와 왕상 8:23-53과 비교해 보면 모두 신명기사가 신학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기도는 참회로 시작하여 간청으로 이어진다. Paul L. Redditt,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148.

32) C. L. Seow, *Dani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141-142.

째, 다니엘은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대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다: 1)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였다(단 9:5a, 9); 2)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단 9:5b, 10); 3)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단 9:6, 10); 4)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단 9:7a, 11); 5) 재앙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단 9:13). 셋째, 포로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 심판은 옳다(단 9:14). 넷째, 백성들이 각국으로 쫓겨난 이유는 죄악 때문이다(단 9:7b).

후반부의 간구하는 기도(9:15-19)에서 다니엘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를 겪고 있으며(9:15-16), 백성들은 이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여긴다(9:16). 그리고 주의 분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9:16),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기를 간구한다(9:17). 즉, 회복은 하나님의 자유이기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간구를 드린다(9:18). 회복은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초래된 포로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이다.³³⁾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백성들이 함께 하는 회개운동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민족을 위하여 중보자가 대신 드리는 회개 기도이다. 기도의 핵심은 현재의 위기를 그들의 조상들과 현 세대의 죄악 때문임을 받아들이고, 공의의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속히 회복이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회개운동 때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3) 배정훈, 『다니엘』, 193-194.

4) 역대기서의 회개운동(역대기하 7장)³⁴⁾

역대기서에서의 회개운동은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본문과 유사하지만, 추구하는 회복의 내용면에서는 죄 사함과 땅의 치유를 언급한다는 면에서 약간 다르다. 이는 역대기서가 제사장 문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명기와 제사장 문헌에서 회개는 언약에 근거한다. 둘 다 언약의 파기를 인간의 죄로 이해하지만 회복에 대한 이해는 조금 다르다.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불순종의 대기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슈브)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와 말씀에 청종하면”(신 30:2),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슈브)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신 30:3). 신명기 28장처럼, 레위기 26장도 인간의 죄로 인한 재앙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간다. 회복은 언약을 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인하여 성취될 것이다(레 26:44).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땅은 황무함으로 안식을 누린다(레 26:34). 레위기에서 슈브라는 동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슈브에 상응하는 회개운동의 내용은 담겨 있다. 레위기 26장은 회개운동을 위하여 포로가 끝날 때까지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³⁵⁾ 첫째, 자신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한다(야다/יָדָא, 레 26:40). 조상들의 죄까지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다. 둘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다(카나/כָּנָה, 레 26:41). 낮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자만심을 갖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³⁶⁾ 셋째, 그들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이다(레 26:41). 기쁘게 받는다는 단어(라차/רָצָה)는 이사야 40장 2절에 나오는 단어로서 형벌의 기간을 통하여 대

34) 김윤희, “역대하 10-36장 문맥에서 본 7장 14절의 전략적 역할과 평양 대부흥”, 『한국 신학정보연구원 성서학 학술 세미나』(2007), 307-328.

35) William D. Barrick, “The Eschatological Significance of Leviticus 26”, *The Master's Seminary Journal* 16/1 (Spring 2005), 95-126.

36) 위의 책, 107.

속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³⁷⁾

역대기에서의 회개운동의 내용은 레위기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 역대기하 7장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정을 이루는 성전 건축과 봉헌식을 하고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으로서 열왕기 상 8장 54절-9장 9절과 유사한 자료이지만 신명기 사가의 신학과는 다른 신학을 보여주는 본문이다.³⁸⁾ 이 본문은 앞으로 왕정 시대동안 위기에 닥치면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다. 역대하 6장에서 이미 다음과 같은 위기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범죄한 자(대하 6:23); 땅으로의 귀환(대하 6:25); 비가 내리지 않음(대하 6:26); 기근, 전염병, 곡식의 시듦, 감부기, 재앙, 질병(대하 6:28).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땅의 황폐라는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대하 7:13).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위기로부터의 회복은 인간의 죄 사함과 땅의 고침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그렇다면 이 본문은 회복을 위한 회개운동에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회개운동을 요구하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슈브/שוב), 스스로 낮추고(카나/כָּנָה), 기도하여(팔랄/פָּלַל), 내 얼굴을 찾으면(비케쉬/בִּקְשׂוּ).”(대하 7:14a). 인간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돌이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37) 위의 책, 108.

38) 솔로몬 시대를 보여주는 역대기하 1-11장은 크게 성전건축과 봉헌(1-7장),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와 종말(8-11장)으로 나누인다. 7장의 전반부(1-10절)는 성전 봉헌 축제의 절정이고, 후반부(11-22 절)는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 11-16절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수락을 다루고, 17-22절은 솔로몬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가 나타난다. S. Japhet, *I and II Chronicles* (OTL; London: SCM Press, 1993), 606-617.

것이다. 신명기적인 회개를 뜻하는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회개의 의미를 심화시킨다. 겸비함으로 쓰이는 용어(카나)는 자신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다.³⁹⁾ 역대기에서 기도는 회개와 용서를 빌거나,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대상 5:20; 대하 13:14; 14:11; 18:31; 20:5-12; 32:20).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동은(대하 7:14; 15:2, 12, 13; 19:3) 다윗 왕의 통치 아래 성전에서 제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중심의 신앙을 담고 있다.

이 본문은 역대기사가적인 회개운동을 보여주는데, 회복은 죄 사함과 땅의 치유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첫째,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황폐하게 될 때 땅과 땅에 속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개운동이 필요하다. 둘째, 회개운동은 인간의 죄 사함만이 아니라 땅의 치유 과정까지 포함한다. 셋째, 회개운동을 위하여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분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이다.

4. 결론

이 글의 목적은 구약성서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회개운동을 연구하여 오늘날 위기 앞에서 교회의 회개운동을 위한 모델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방법은 회개운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본문들인 사무엘상 7장, 예언서인 요엘서, 요나서 3장, 이사야서 1장과 예레미야 7장, 묵시문학인 다니엘서 9장, 그리고 역대하 7장을 검토하였

39) 역대기에서 14번 회개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솔로몬(7:14); 르호보암(12:6, 7(두번), 12);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30:11); 히스기야(32:26); 므낫세(33:12, 19), 아몬(33:23 - 두 번), 요시아(34:27-두 번), 시드기야(36:12), S. Japhet, 위의 책.

다. 연구를 통하여 신명기사가적인 회개운동의 형식은 임박한 재앙의 위협 - 회개의 촉구 - 회개를 통한 재앙의 돌이킴 - 회복 또는 멸망임을 발견하였다. 신명기 7장에서의 회개운동은 가장 이상적인 회개운동으로서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의 군사적인 위협을 막아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였다. 요엘서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아직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기의 다가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역이 돋보인다. 요나서 3장은 비록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이지만 임박한 재앙의 선포 앞에서 온 백성이 회개에 참여하여 재앙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모델이 된다. 예레미야에서는 임박한 재앙 앞에서 회개운동을 촉구하였지만, 돌이키지 않음으로 재앙을 맞이하는 실패한 회개운동을 보여준다. 이사야 1장은 돌이키지 않은 실패의 아픔을 안은 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회개운동을 요청한다. 다니엘서 9장은 묵시문학이지만 신명기적인 회개를 보여준다. 다니엘서 9장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해버린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범적인 중보자의 기도이다. 신명기사가적 회개운동과는 약간 내용이 다른 역대기하 7장은 자연재해의 위기를 치유 받을 땅으로 이해하고 죄 사함과 땅의 고침을 간구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 스스로 낮추는 겸비함,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담긴 회개운동을 요청한다.

이 연구는 앞으로 교회가 회개운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회개운동을 위하여 위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세속화에 몰들어가는 교회, 칭의에 머물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윤리 실종의 위기, 사회 문제의 중심에 있는 목회자, 예언자 기능을 상실한 교회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위기는 블레셋의 위협처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위협일 수도 있다. 또한 요엘처럼 시대의 위기에 대한 예언자적인 진단을 통해 예견되는 재앙으로 이해되면서 회개를 촉구할 수 있다.

둘째, 제의와 윤리에 대한 균형의 문제를 인식하여야 한다. 제의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회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만족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요소를 담고 있다. 예배의 변화는 곧 삶을 치유하고 삶의 능력을 얻기 위함이다. 예배는 자기들만의 리그요 교만의 상징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안티 기독교가 늘어가는 시대에 제의와 윤리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윤리의 추구는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명의 실현이다. 교회의 자기반성적인 돌아봄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한 돌봄,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약자를 위한 예언자의 목소리가 울려나야 한다. 셋째, 회개운동은 공동체를 건강하게하며 치유와 회복을 풍성하게 하는 신학적 인식의 확장을 추구한다. 회개운동은 잘못을 돌이키는 죄 사함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야 한다. 회개운동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중보자로 서야 한다. 회개운동은 개인적으로 악에서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이미 우리의 악에 의하여 더러워진 땅의 치유를 위하여 거룩 운동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땅이란 우리의 존재 터전으로서, 가정, 학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 각 분야를 말한다. 땅의 황폐함을 통하여 질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참고문헌

- 장사문, 『사무엘상』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8).
- 장성렬, “고대 이스라엘의 애곡 의식과 회개”, 「한국신학정보 연구원 성서학 학술 세미나」(2007).
- 피체만, J. & 라우바흐, F. “성서에 나타난 회개”, 「기독교 사상」 28

- (1984), 20-32.
- 김찬국, “성서에 나타난 회개의 의미”, 『기독교 사상』 22 (1978), 18-22.
- 김동혁, “에스겔서 회개 본문들의 의미와 기능 : 에스겔 3장 16b-21절; 14장 1-11절; 18장 21-32절; 33장 10-20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58 (2015년 12월), 105-123.
- 랄프, 클레인 W. 『사무엘상』 (WBC; 서울: 솔로몬, 2004).
- 배정훈, “성전멸망을 선포한 예언자-예레미야와 예수”, 『장신논단』 47권 1호 (2015년 3월), 41-67.
- 배정훈, 『다니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 배정훈, 『대예언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7).
- 소형근, “‘너는 돌아와 다시 아웨의 말씀을 청종하고’(신 30:8) -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심(חַיִּיט)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2 (2011년 4월), 105-123.
- 스위니, 마빈, A. 『예언서』 (서울: 대한 기독교사회, 2015).
- 스튜어트, 더글라스, 『호세아-요나』 (WBC; 서울: 솔로몬, 2011), 470.
-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개론』 (왜관: 분도 출판사, 2012).
- 우택주, “회개의 미학, 불평의 신학, 그리고 합당한 길”, 『기독교 사상』 (2004년 11월호), 98-107.
- 윌슨, 로버트 R.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 (서울: 예찬사).
- 이종성, “회개의 신학적 의미”, 『기독교 사상』 28 (1984), 33-43.
- 장성길, “구약성경에 나타난 회개의 의미”, 헤르메니아 투데이 제39호 (2007 여름), 30-40.
- 정승원, “회개”, 헤르메니아 투데이 제39호 (2007 여름), 10-29.
- 차준희, 『최근 구약 예언서 이해』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8).
- Barrick, William D., “The Eschatological Sifnificance of Leviyti-

- cus 26”, *TMSJ* 16/1 (Spring 2005), 95-126.
- Bergen, Robert D. *1, 2 Samu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 Holman, 1996).
- Botterweck, G. Johannes, tr. by John T. Willi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ublic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7).
- Childs, B. S., *Isaiah* (OTL; Westminster: Louisville, 2001).
- Childs, B. S., *Isaiah and the Assyrian Crisis* (Naperville: Allenson; London: SCM, 1967).
- Craigie, Peter C., *Jeremiah 1-25* (Dallas: Word Books, 1991).
- Holt, Else Kragelund, “Jeremiah’s Temple Sermon and the Deuteronomists: An Investigation of the Red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Jeremiah 7 and 26”,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6 (1986), 73-87.
- Japhet, S. *I and II Chronicles* (OTL; London: SCM Press, 1993).
- Unterman, Jeremiah, *From Repentance to Redemption: Jeremiah’s Thought in Transition* (JSOT Sup;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McCarter, K. *1 Samuel* (Garden City: Doubleday, 1980).
- Clements, R. E. *Prophecy and Covenant* (London: SCM Press, 1965).
- Raitt, T. M., *Theology of Exi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c1977).
- Redditt, Paul L.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 Emadi, Samuel, “Repentance, Eschatology, and Prophetic Hope: Repentance in the Book of Isaiah”, *Puritan Reformed*

Journal 5,2 (2013), 24-45.

Seow, C. L. *Daniel*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Cartledge, Tony W, 1 & 2 Samu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eorgia: Smyth & Helwys, 2001).

VanGemeren, Willem A. ed.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997).

Holladay, William, *The Root Subh in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58).

Wolff, H. *The Vitality of Old Testament Tradition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검색어

회개운동

땅을 고칠지라

돌아오라

사무엘

Repentance-Movement in the Old Testament

Chong-Hun Pae,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pentance movements in the Old Testament that arose in times of national crisis, in order to seek a model of the repentance movement for churches in today's crisis. This study was achieved by examining the following texts: 1 Samuel 7, Joel, Jonah 3, Isaiah 1, Jeremiah 7, Daniel 9, and 2 Chronicles 7.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discovered that the Deuteronomistic repentance movement forms a pattern of imminent threat of disasters, urge for repentance, and removal of disasters through repentance. The repentance movement of 1 Samuel 7 was the most ideal movement in which the Israelites gathered in Mizpah to repent and worship God as the one and only, resulting in God's protection of the Israelites from the threat of the Philistine army to maintain peace. Joel led a repentance movement by showing a prophetic action conveying an impending

www.kci.go.kr

crisis that the people did not notice through natural disasters. Jonah 3 deals with the salvation of the Gentiles, but it presents an ideal model of all people participating in repentance and avoiding a disaster that has been announced to be imminent. Isaiah 1 demands the practice of justice from the remnant of Judah if they wish to survive, who has just experienced a disaster through disobedience. Following Deuteronomistic repentance movement pattern, Jeremiah also demanded that the Israelite people should return from their evil deeds and do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face of the crisis of destruction. Daniel 9, though not a repentance movement of the people, is an exemplar of a whole-hearted prayer for them out of sorrow for national destruction by their sin, totally relying on God's grace. Unlike the Deuteronomistic repentance movement patterns, 2 Chronicle 7 requires repentance movements that understand the crisis of natural disasters as the need to heal the land, ask forgiveness and the healing of the land, humble themselves, and pray for God's presence.

I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church which participates in the repentance movement.

Keywords

repentance movement

return

healing of the land

Samuel

- 투고일: 2017년 7월 01일
- 심사일: 2017년 7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www.kci.go.kr